

계약 인수 뒤 “환급 나몰라라” 공정위, 상조업체 피해 주의보

A씨는 B상조업체와 매월 4만원씩 60회(총240만원) 납입 조건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44회(총176만원) 회비를 납입한 상황에서 C상조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상조업체 회원을 인수했고, 이후 B상조업체는 폐업했다. A씨는 C상조업체에 나머지 16회(64만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입해 총60회를 완납했으나 C상조업체도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선수금이 예치된 은행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은행에는 C상조업체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32만원만 예치돼 있었다.

**합병 전 업체에 낸 회비 책임 안져
소비자들 선수금 보전 등 확인해야
올해 1분기 피해 상담 4642건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기준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3개이며 가입자는 398만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4년 1만7083건으로 전년(1만870건)에 비해 57.1%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1분기에만 464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는 주로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수업체에서 회원이 이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회원을 인도하는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조업체간 회원 인수 방법 중

합병, 사업의 전부 양도를 제외한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C씨는 D상조업체의 360만원(월 3만원)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3만원씩 납부하던 중 D상조업체가 등록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예치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치명단에 등록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금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을 전혀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와의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은행계좌에서 일일금액을

자동으로 인출해가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최소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장례 시 소비자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혼수용품 해외직구 가격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구분	제품명	판매국	해외직구가 (원)	국내판매가 (원)	국내가 대비 (%)
매트리스	템퍼 타피 3인치 퀘사이즈	미국	59만 4444	160만	-62.8
전기 레인지	지멘스 (ET651FK17E)	독일	44만 982	110만	-59.9
캡슐커피머신	네스프레소 시피즈D110	프랑스	17만 5888	37만 6000	-53.2
	일리 프란시스 x7.1	프랑스	28만 2867	59만 9000	-52.8
TV	LG 65인치(LB7100)	미국	292만 7762	358만	-18.2
	삼성65인치(UN6350AF)	미국	242만 2444	250만 8900	-3.4
진공 청소기	다이슨 DC45	미국	43만 6034	50만	-12.8
	샐리트 시코매틱 T-Plus 실라칸 레몬 그린 압력솔 2.5L	독일	16만 4856	21만 1900	-22.2
압력솔	WMF 퍼펙트프로 3리터	독일	21만 364	18만 9000	11.3

■ 혼수용품 해외직구·국내구매 비교해보니

전기레인지 등 8개 품목은 해외가 최대 60% 이상 싸

전기레인지 등 혼수용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최대 60% 이상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혼수용품 중 국내 판매가와 비교 가능한 9개 제품을 골라 해외 직구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품목 중 8개가 국내 판매가보다 싼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배송비·관세·부가세를 다 몰아도 해외 직구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G마켓·11번가 등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가격 중 가장 싼 값을 기준으로 했고, 해외에선 주로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국내 판매가와 해외 직구의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제품은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의 퀘사이즈 3인치 매트리스였다. 국내에선 160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미국 접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면 배송료와 세금을 뺀 110만원에 살 수 있다. 63% 정도 싼 가격이다. 독일 아마존에서 지멘스 전기레인지를 사면 국내가(110만원)보다 60% 싼 44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캡슐커피를 내려 마시는 기계 중 네스프레소

제품(시티즈 D110)은 독일 쇼핑몰에서, 일리 제품(프란시스 x7.1)은 프랑스 쇼핑몰에서 각각 53% 정도 싸게 팔았다.

혼수용품 해외 직구 가격 비교 표 텔레비전은 국내의 구매가의 가격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다. LG전자의 65인치 TV를 미국에서 들여오면 국내 가격보다 18% 저렴했고, 삼성전자의 65인치 TV의 경우 3% 정도 싼다.

만일 혼수용품으로 조사 대상 제품 중 TV(LG)와 전기레인지, 진공청소기, 매트리스, 캡슐커피머신(네스프레소), 압력솔(샐리트)을 각 1개씩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해외 직구로는 총 474만원 정도가 들어 국내에서 사는 값(737만원)보다 약 26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되는 도중 제품이 망가졌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직구 상품인 경우 국내에서 사후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개인정보 장사’ 홈페이지에 뿔난 시민단체

공정 수사·강력 처벌 촉구 검찰에 탄원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등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홈페이지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26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홈페이지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홈페이지 임직원들은 “대부분의 경품행사는 개인정보 판매까지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홈페이지는 회원들이 요구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해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

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홈페이지 회원들은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홈페이지의 제3자 제공현황 삭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경품응모권을 통해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홈페이지 경품응모권을 살펴보면, 보유·이용기간이 2017년 2월 8일까지로 돼 있다”며 “홈페이지가 고객들의 정부를 내부 프로세스상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증거인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소비자단체들은 “홈페이지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법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축소하기 위해 소비자와 맺은 기본적인 계약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페이지는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회사로부터 231억7000만원에 팔아 넉넉한 수익을 거두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짜 백수오’ 계기 건강기능식품 제도 손본다

식약처, 제조·유통·사후 관리 전과정 개선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능)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능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이미 건기능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하겠다는 것. 기존에는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취소할 수 없었지만, 재평

가 결과 기능성을 인정받았던 것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3~5년마다 주기적으로 모든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재평가하고, 이번 백수오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평가 대상은 인정연도와 매출액, 기능성·안전성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입금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